

**+ 우리들의 정성 【2월 27일(월) ~ 3월 5일(주일)】**

[illegible]

본당 부채 현황(교구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00,000,000원	6,740,000원	17,795,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 I 미사전례》)

◆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안에만 현존하십니까?

○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로마 8,34 참조)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현존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마태 18,20)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 모임 안에, 신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이 봉독될 때와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마태 25.31-46 참조)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미사성제 때에 빵과 포도주가 축성됨으로써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형상 안에 가장 완전하게 ‘실재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사가 거행되고 감실이 모셔져 있는 성당과 경당은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해 계시는 그리스도를 흠송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입니다.